

3430

340,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研究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 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 金正日體制 登場時期에 있어서의 東北亞 國際政治 展望

研究責任 金 學 俊



(略歴) 서울대 文理大 政治學科卒 (1965)

서울대 大學院 政治學碩士 (1969)

美國 하츠버그大學院卒 政治學博士 (1972)

서울대 政治學科 教授 (1973 ~ )

聖 勳

( 調查研究室 補佐官 )

김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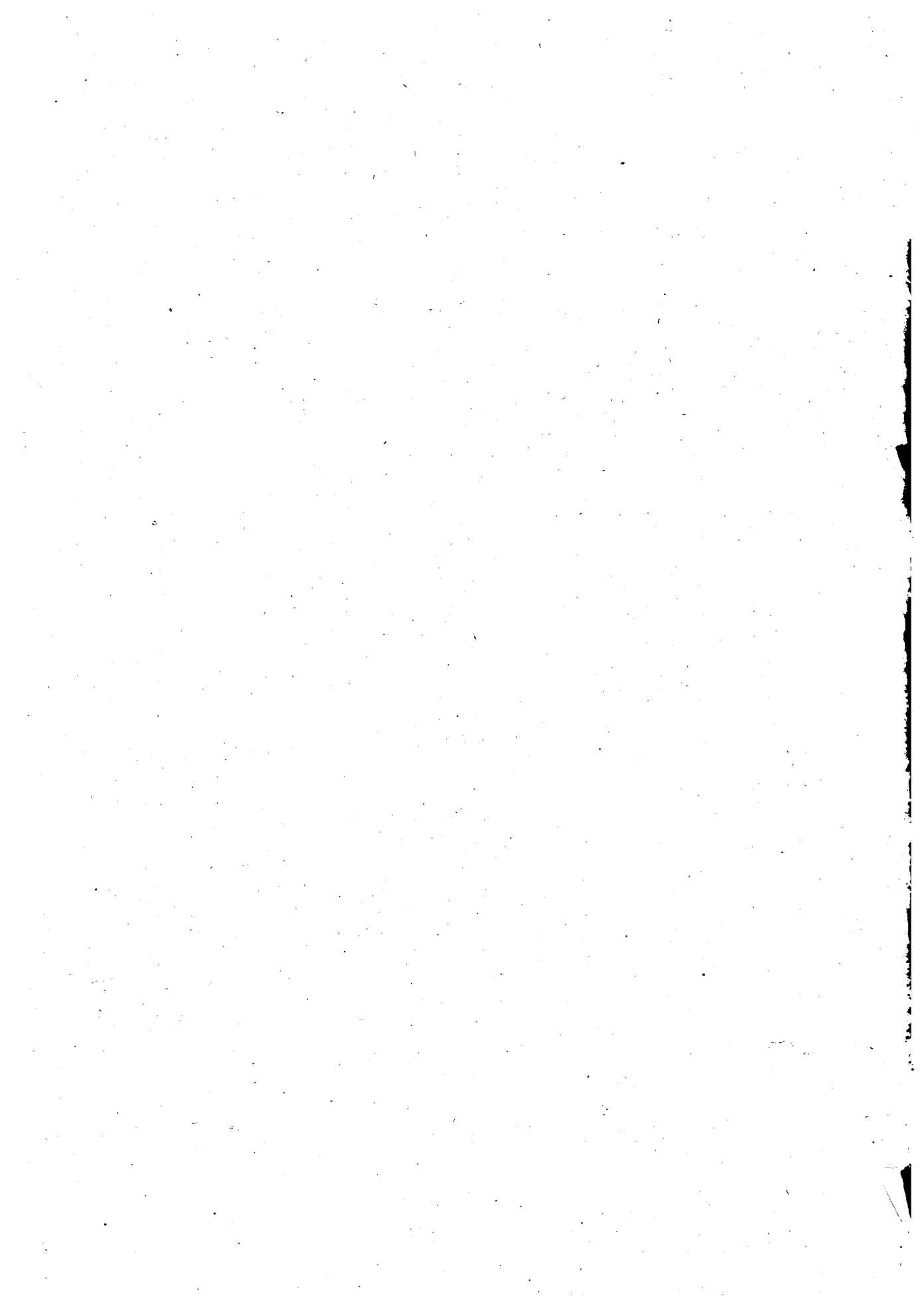
) 북한정기  
남북한관계인양  
강강의해제  
동북아정세.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I. 머리 말 .....	3
II. 6次黨大會 이전의 北韓政治 .....	5
III. 金正日의 政治的 成長過程과 北韓政治 .....	11
IV. 第6次 黨大會와 金正日後繼者 公式化 .....	16
V. 金正日體制的 國內政治的 向方 .....	20
VI. 金日成·金正日體制的 國際環境 .....	27
(1) 國際政治의 全般的 狀況 .....	27
(2) 中·蘇 對決과 北韓 .....	33
(3) 南·北韓關係의 展望 .....	37
VII. 結 論 .....	45



## I. 머 리 말

北韓의 조선로동당 제 6 차 大會는 그 이전의 어느 黨大會보다도 國內外的 깊은 關心을 유발했다. 제 5 차 黨大會로부터 만 10 년이 지난 1980 年 10 月 10 日부터 14 일까지 계속된 이 黨大會는 金日成의 長男 金正日을 金日成의 後繼者로서의 政治的 地位에 올려 놓는 공식적 舞臺로서 活用되었기 때문이다. 共產政治體制에서도 類例없는 이 權力的 世襲적 繼承은 그 自體로서도 國際的 批判의 對象이 아닐 수 없거니와, 더구나 왕조적 父子 世襲체제가 과연 安定性을 유지할 수 있는나의 자연스런 疑問이 뒤따라짐으로써 그 관심은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제 6 차 黨大會가 國內外的 耳目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大會에서 발표된 金日成의 報告가 對美關係를 비롯한 對外關係 전반에 있어서의 調節을 시사했다는 分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分析은 특히 美國의 官邊과 學者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金日成이 자신의 政策演說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北韓과 美國 關係의 改善問題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음에 유의하여 北韓의 對外 行態가 달라질 것으로까지 예측했었다.<sup>1)</sup>

제 6 차 黨大會로부터 3 년이 가까와지고 있다. 이 세 해 사이에 北韓이 보여준 對內外 動向은 黨大會 당시의 관심과 의문 및 분석이 오늘날의 時點에서도 여전히 有意性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

註 1) U.S.F.B.I.S., Daily Report, December 5, 1980, North Korea.

준다. 즉 ①세습체제의 장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②北韓이 對外關係에 있어서 어느 정도 調節의 態度를 보이고 있음이 확실해진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 關心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제 金正日의 權力世襲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 그가 單獨支配者로 등장하는 경우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의 國際政治는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의 물음이 그것이다.

## II. 第6次 黨大會 이전의 北韓의 政治

여기서 우리는 잠시 제6차 黨大會 이전의 北韓의 政治를 주로 金日成 獨裁體制가 확립되어 온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다. 그 作業이 선행되어야 제6차 黨大會 이후의 北韓 政治를 正確히 把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면밀히 分析되어 있는 바와 같이, 解放 직후의 北韓 政治에는 다섯개의 派閥 또는 勢力이 등장했다.<sup>2)</sup> 첫째가 右翼 民族主義 勢力으로서 이들은 古堂 曹晚植을 중심으로 朝鮮民主黨을 결성했고 해방 초기(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중순)의 北韓 政治에서 어느 정도 影響力을 행사했다. 둘째가 國內派 共產主義 勢力으로서 이들은 서울에서 朴憲永에 의해 재건된 朝鮮共產黨의 正統性을 지지하거나 또는 當時의 北韓의 革命段階를 <부르조아 民主主義 革命> 段階로 把握하여 曹晚植을 중심으로 한 右翼民族主義 勢力을 지지했다. 셋째가 延安派 共產主義 勢力으로서 이들은 中國共產黨의 비호아래, 성장했다가 解放과 더불어 入北하여 新民黨을 창건했다. 넷째가 蘇聯派 共產主義 勢力으로서 이들은 帝政러시아 당시에 러시아로 귀화한 韓國人 2세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蘇聯國籍과 蘇聯共產黨黨籍을 가졌으며, 蘇聯占領軍의 政治·行政 要員으로서 入北했다. 다섯째가 金日成과 崔庸健 중심의 이른바

---

註 2) 예컨대 Chong-sik Lee, "Politics in North Korea : Pre-Korean War Stage," China Quarterly, No.14 (April - June 1963), pp.3~5.

< 게릴라 그룹 > 으로서, 中國共產黨의 만주지역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에서 출발했으나 日本軍의 소탕작전에 쫓겨 시베리아로 밀려 들어갔다가 蘇聯極東軍과 연계를 갖고 그 하부조직에 편입된 공산주의勢力이다. 活動據點의 이름을 따 甲山派라고도 부른다. 이 勢力이 해방 직후 蘇聯派 共產主義 勢力과 제휴하여 蘇聯 占領軍을 추종하면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창설하고 北韓政治의 실권을 장악했다.

해방이후 北韓의 政治는 이 다섯번째 세력이 나머지 다른 네 勢力을 제거하면서 北韓의 政治權力을 獨占해 나간 과정의 記錄이다. 제일 먼저 제거된 勢力이 右翼 民族主義 勢力이다. 이들이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議定書를 수락하지 않고 反託運動을 전개하자 蘇聯占領軍 그리고 이들을 추종한 蘇聯派와 甲山派는 그들을 < 부르조아적 反動勢力 > 으로 단죄하여 숙청했다. 두번째로 제거된 勢力이 國內派 共產主義 勢力이다. 이 勢力은 南韓에서의 不法化 조치에 따라 월북한 南韓의 國內派 共產主義者들과 더불어 숫적으로는 결코 弱勢가 아니었다. 그러나 韓國動亂의 敗戰의 責任을 뒤집어 쓰고 韓國 休戰協定の 締結 직후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이와 더불어 1950년대 중반부터 蘇聯派도 甲山派와 延安派의 聯合戰線 앞에서 段階的으로 약화됐다.

甲山派와 延安派의 聯合戰線도 오래 가지 않았다. 1956년 2월 제 20 차 蘇聯 共產黨 大會에서 흐루시초프 (Nikita S. Khrushchev)가 스탈린 (Joseph Stalin)의 個人崇拜를 공격하고 스탈린 格下運動을 주도해 나가자, 延安派도 이 물결을 타고 金日成의 獨裁와 個人崇拜



경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 舞臺는 1956년 4월에 열린 北韓 노동당 제3次大會와 같은 해 8월에 열린 黨 中央委員會 總會였다. 그러나 黨 機構와 裝置를 장악한 金日成 그룹에 의해 延安派는 敗北 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58년까지는 거의 完全히 거세되었다. 그리고 이를 契機로 金日成 그룹은 잔존 反對派들에 대한 肅清을 完了하여, 1961년 9월에 열린 第4次 黨大會에서는 순전히 自派만으로 黨의 主要機關을 채울 수 있었다. 이大會에서 金日成이 “우리 黨은 反黨 宗派分子들과 그들의 思想的, 余毒을 반대하는 완강한 鬭爭을 통해 장구한 期間 동안 우리의 勞動運動에 莫大한 害毒을 끼쳐 온 宗派를 뿌리채 청산하고 黨의 統一과 團結을 결정적으로 強化했으며, 朝鮮 共產主義運動의 完全한 統一을 實現하는 歷史的 偉業을 達成했다”고 宣言한 것은, 그의 反對勢力이 完全히 除去되고 1人 獨裁體制가 強化되었음을 立證해 준다.<sup>3)</sup>

이처럼 自身과 自派의 獨裁體制를 確立해 가면서 金日成은 <黨의 유일사상體系>로서 이른바 主體思想을 體系化해 나갔다. 원래 金日成이 主體의 確立問題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黨의 宣傳煽動 일꾼들 앞에서 행한 「思想事業에서의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에서였다. 여기서 그는 “우리나라의 歷史도, 우리 人民의 傳統도 무시하고 우

註 3) 조재관, “黨과 政治權力,”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政治論』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135.

리의 現實과 우리 人民의 각오 정도도 考慮함이 없이 남의 經驗을 機械的으로 適用한다면 教條主義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革命事業에 큰 損失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前提하고, “革命的 眞理—마르크스·레닌주의적 眞理를 우리 나라 實情에 알맞게 適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結論지었다. 이것이 中·蘇紛爭 속에서의 北韓의 自主的 位置 確保問題와 關聯되어 여러 形態로 理論化되어 오다가 1965年 4月 마침내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네개의 原則으로써 그 具現形態를 定式化했다.<sup>4)</sup>

이 主體思想이 金日成 獨裁體制를 뒷받침하는 北韓의 〈官定 이데올로기〉임은 물론이다. 그것은 프리드리히(C.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全體主義的 獨裁體制的 構成要素의 하나로 設定한 〈官定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우리 黨의 主體思想은 우리의 革命과 建設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한 가장 正確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指導思想이며, 人民共和國 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이라는 金日成의 定義가 말해 주고 있듯이, 그것은 北韓住民들을 思想的으로 劃一化하고 政治的으로 管制화하며 經濟建設과 軍事力 強化에 總動員하는 이데올로기적 道具인 것이다. 北韓에서 〈黨의 유일사상 체계〉에 어긋나는 일체의 思想要素들이 〈反黨의〉이거나 〈機會主義的의〉 또는 〈反動的의〉이라는 이름 아래 抹殺되고, 黨內的 反對派를 除去할 때도 으레

---

註 4) 양호민, “主體思想과 政治教化”, *ibid*, p.388.

〈黨의 唯一思想 體系〉를 反對했다는 낙인을 찍어 왔다는 것이 이를 말하고 있다.<sup>5)</sup>

1970年 11월에 開催된 第5次 黨大會는 이처럼 確固히 樹立된 金日成 獨裁體制的 바탕 위에서 〈南朝鮮의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強力히 추구하기로 決定했다. 이와 同時에 金日成과 그 革命家系의 神格化作業이 進行되었다. 그 作業은 1972年 4月 15日 金日成의 환갑과 더불어 정점에 到達했다.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라는 用語로써 說明해 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制定된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은 第4條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規定했으며, 그 大部分이 造作된 金日成의 1945年 이전의 〈革命鬪爭〉을 〈國家의 公式的 革命傳統〉으로 宣言했다. 金日成은 또한 內閣의 首相으로부터 國家의 首班이자 軍의 最高司領官이며 國防委員會의 議長인 國家의 主席으로 격상됐다.

이와 더불어 政治權力的 世襲的 承繼 段階에 들어서기 始作했다. 매마침 中共에서는 毛澤東의 後繼競爭을 둘러싼 政治鬪爭이 치열히 展開했으며, 이미 毛澤東 個人崇拜와 神格化에 대한 疑問을 提起되고 있었다. 이것은 逆說적으로 金日成에게 世襲體制 建設의 必要性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을 것이 틀림 없다. 1973年 9月 北韓은 黨 中央委員會 秘密 全員會議를 召集하고 金正일을 黨의

---

註 5) Ibid., pp. 388 ~ 389.

가장 重要한 세가지 機能인 組織과 宣傳 및 煽動을 관장하는 黨書記 가운데 한 사람으로 選出됐다. 이와 同時에 北韓의 社會科學院이 發行하는 『政治事典』에서 <世襲的 繼承>이라는 項目이 빠졌다. 1970 年에 發行된 『政治用語事典』은 <世襲的 繼承』을 <搾取社會의 反動的 관행>이라고 批難하고, “그러한 관행은 과거의 노예社會와 封建社會에서나 볼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도 地主와 資本家들이 勞動階級을 支配하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發見된다.”고 說明했었다. 그런데 1973 年 12 月에 『政治用語事典』을 修正한 『政治事典』은 이 項目을 빠뜨린 것이다.<sup>6)</sup> 이 때로부터 金正日을 後繼者로 公式化시키는 10 年餘의 過程이 始作됐다.

---

註 6) Dong-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 Vol.5 No. 3 (February, 1981), p.415.

### Ⅲ. 金正日の 政治的 成長過程과 北韓政治

金正日は 1941年 2月 16日 시베리아에서 金日成의 첫번째 부인 金貞淑의 두 아들 가운데 長男으로 태어나, 만경대학원을 1953년에 卒業하고 東獨의 航空學校를 거쳐 金日成大學을 1963년에 卒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同時에 黨 中央委員會의 <教官>이 되었으며, 1970年 黨 文化藝術課長職과 그리고 三寸 金英柱가 責任者로 있었던 黨 組織指導部の 副部長職을 同時에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앞서 指摘했듯이, 그는 1973年 9月 組織·宣傳·煽動擔當의 黨 書記局의 一員으로 부상한 것이다.<sup>7)</sup>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가 金日成의 後繼者로 내정되었다고 믿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974年과 1975年 사이에 그를 둘러싸고 注目할만한 事態들이 展開되기 始作했다. 우선 1974年 黨中央委員會 第6期 9次全員會議에서 그는 沈滯해 가는 北韓의 經濟를 밀어 올리기 위한 3大革命小組 運動의 指導者로서 決定되었으며, “青年들은 革命을 繼承하여 代를 이어 推進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指示가 強調되었다. 1975年 가을부터 金正日을 가리키는 <黨中央>이라는 모호한 用語가 많은 記事와 報道들 속에 나타나기 始作했다. 이 用語는 “黨의 中心的 機構라는 無生物 客體가 아니라, <黨 中央의 사랑>이니 <아버지 首領과 黨 中央>에 있어서와 같이 第3의 單一人物

註 7) Ibid., pp 426 ~ 427.

을 나타내는 用語로 使用되었다.” 8)

그뿐 아니었다. 平壤運動場에 約 1萬5千名の 靑少年들을 動員한 運動會나 靑年 祝際等이 金正日의 生日인 2月16日에 열렸다.

1949年에 死亡한 것으로 알려진 金正日의 어머니 金貞淑의 神格化 作業이 뒤따랐다. 北韓政權의 創建 첫 해에 金日成 부인으로 있었을 동안에도 거의 言及되지 않았던 金貞淑은 이 時點에 와서 北韓의 公式 매체들에 의해 <偉대한 指導者들에게 充實했던 共產主義 革命 빨치산 隊員>으로 讚揚되었다. 그녀에 대한 回顧談이 發表되었고, 그녀의 故鄉 회령에는 그녀를 記念하기 위한 博物館이 세워졌다. 게다가 朝鮮民主女性 同盟委員長인 金日成의 現在의 妻 金聖愛마저 金貞淑을 <불굴의 共產主義 革命鬪士요 위대한 朝鮮 女性運動의 指導者>라고 讚揚하기 시작했다.<sup>9)</sup>

1976年末에 發刊된 몇 卷의 책들을 後繼者로서의 金正日의 지위 向上을 위한 一種의 象徵操作으로 간주된다. 그 첫째가 黨이 黨員들에게 配付한 『위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永生不滅의 저작에 관한 黨 幹部用 教材』이다. 黨 創建 30週年에 즈음하여 發刊된 이 小冊子는 “勞動階級の 革命은 한 世代안에 成就될 수 없는 歷史的 目標로서 […………] 革命的 目標가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継承되지 않는다면 그 革命은 中斷되고 말 것”이라고 宣言하고,

---

註 8) 서대숙 “金日成：그의 性格과 政治，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法文社，1982), p.87.

9) Ibid., pp. 87~88.

“敬愛하는 教師 金正日同志 덕분에 우리 人民은 위대한 首領님에 의해 시작된 革命을 達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은 다음, 金正日을 金日成의 <유일한 候繼者>라고 結論지었다. 둘째가 朝總聯 幹部들에게 配付된 教材이다. 『學習 要員들의 義務에 관하여』라는 冊子와 『敬愛하는 教師 金正日 同志의 유일한 指導力을 強化할데 대하여』라는 冊子是 金正日을 金日成의 候繼者라고 못박고 그가 이미 黨內에서 廣範圍한 책무를 遂行하고 있다고 強調했다.

셋째가 1977年 2月號 『勤勞者』의 論說이다. 黨의 公式 月刊誌인 이 理論誌에 나타난 한 論說은 <革命的 領導力의 올바른 계승>이 金日成에 의해 시작된 革命課業의 궁극적 勝利를 保障한다고 強調하면서 金正日이 金日成의 後繼者가 되어야 한다는 點을 시사했다.<sup>10)</sup>

그렇다고 해서 金正日을 자신의 後繼者로 만들려는 金日成의 努力에 대해 아무런 反對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두 그룹으로부터 비록 公開的인 저항은 아닐지라도 못마땅하다는 感情의 表示가 은연중에나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다.<sup>11)</sup> 첫째가 黨內의 이론가 그룹이었다. 오랫동안 마르크시즘 - 레닌리즘의 理論 속에서 成長한 이들은 비록 主體思想을 통치의 도구로서 수락하기는 하였으나 世襲體制까지 긍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둘째가 北韓社會에서 성장한 일종의 테크노크라트 그룹이었다.

註 10)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pp.430 ~ 431.

11) Ibid., pp.433 ~ 434.

이들은 北韓이 金日成의 革命路線을 繼續적으로 追求하게 되는 경우 北韓의 經濟發展은 상당한 한계에 直面하게 될 것으로 評價하고 보다 實用主義的인 路線으로 서서히 轉換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다. 비단 이 두 그룹만이 아니다. 勞動者들로부터 黨의 高位官吏들에 이르기까지 金正日의 격상에 대한 不滿은 컸던 것 같다. 이 點에 대해 美國內의 北韓專門家인 徐大肅 教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金日成이 자기 아들을 부각시키려는 이러한 모든 努力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 3大革命小組와 3대革命 붉은기 運動을 促進시키려는 猛烈한 宣傳에도 불구하고, 많은 勤勞者들은 자신들의 統計만 알고 실제 作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學生들의 감시하에서 일하는 것을 분개했다. 最初 指導者들에게 充實하게 奉仕한 黨의 高位官僚들은 自身들의 技術이 不足하기 때문에 黨 指導權이 讓渡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左遷됨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黨 最高 指導部間에 약간의 심각한 結果가 일어났다. 例를 들어 金日成과 金一 다음으로 서열 제 3位였던 金東규가 숙청되었고 1977年 10月경부터는 아예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다.<sup>12)</sup>

金東규의 숙청은 金正日 世襲에 대한 反對 또는 不贊成의 結果였을 것이며, 그것은 黨內 動向의 한 表出이었을 뿐이다. <老革命家>를 자부하는 黨의 最高 指導級 幹部들이 金正日을 새로운 指導者로서 受諾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推測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겠다.

---

註 12) 서대숙, “金日成: 그의 性格과 政治,” p.88.



이 무렵부터 北韓의 公式 刊行物들은 <黨 中央>에 대한 言及을 거의 完全하게 回避하기 시작했다. 『勤勞者』를 예를 들면, 1977年 1月號에는 26回, 2月號에는 1百 19回, 3月號에는 18回에 걸쳐 使用했던 <黨 中央>이라는 用語를 1977年 4月號부터 1979年 1月號까지는 한번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전혀 使用하지 않았다. 한번의 例外는 金正日의 生日이 들어 있는 1978年 2月號로서 이때에도 그 使用 頻度は 4回에 그쳤다. 北韓의 公式 刊行物들은 3大 革命小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報道하기 始作했다.<sup>13)</sup> <黨 中央>, 곧 金正日에 대한 內部로부터의 反발이 이러한 現象을 가져왔음이 確實했다.

---

註 13)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p.433.

#### Ⅳ. 第6次 黨大會와 金正日의 後繼者 公式化

그러나 마침내 金日成은 1980年 10月の 第6次 黨大會에서 金正日是 자신의 後繼자로 사실상 공인시킬 수 있었다.

金正日是 10名의 中央黨秘書 가운데 金日成 다음의 第2人者의 地位로 부상했으며, 黨政治局 서열 4位의 地位와 黨 軍事委員會 서열 3位의 地位로 올랐다. 물론 그가 金日成의 後繼者라고 公式 宣 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같은 서열, 그리고 이 序 列의 發表 直後 北韓의 公式 機關紙들이 나타낸 그에 대한 讚揚 은 그가 後繼者로 決定되었다는 점을 明白히 말해 주고 있다.

北韓의 公式 機關紙들은 金正日을 “ 위대하신 首領님에게 끝없이 忠 誠스럽고 首領님의 理念을 完全히 具現하고 있으며 뛰어난 領導力 과 領導者로서의 高貴한 資質을 갖고 最上의 位置에 있는 首領님 의 遠大한 計劃과 의도들을 영명하게 떠받들고 있다”고 激讚하고 그가 “ 빛나는 지혜와 깊은 通察力, 그리고 革命原則에 대한 강한 의식 및 불굴의 意志力을 지니고 있다”고 讚揚했다. 14)

第6次 黨大會에서 黨 指導體制가 改編되었다. 黨의 最高機關인 政 治委員會가 政治局으로 改稱되고, 그 委員도 늘어났다. 즉, 政治委員 會보다 14名의 正委員과 8名의 候補委員이 增員되어 19名의 正委 員과 15名의 候補委員으로 擴大된 것이다. 이 政治局 內에 5名의

註 14) Young C. Kim, “ North Korea in 1980 : The Son Also Rises, ”  
Asian Survey, Vol XXI, No. 1 (January, 1981), p. 113.

로 구성된 常任委員會를 新設했다. 이러한 改編이 金正日의 權力繼承을 돕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첫째 ; 5 名の 常任委員을 金日成 父子 以外에 黨의 最高 元老로서의 金一 國家副主席(黨 政治局 序列 2 位), 軍의 最高 指導者로서의 吳振宇 人民武力部長(黨 政治局 序列 3 位), 政府의 最高指導者로서의 李鍾玉 政務院總理(黨 政治局 序列 5 位)로 構成함으로써 世襲體制에 對한 黨과 軍 및 政府의 結속을 強化하고자 하였다.

둘째, 擴大된 黨 政治局에 軍部를 크게 進出시켰다. 1970 年 第 5 次 黨大會에서 選出된 政治委員會는 16 名の 委員 가운데 4 名만이 軍人이었다. 그런데 이 새 政治局에서는 34 名の 委員 가운데 10 名이 軍人인 것이다. 2 百 48 名の 中央委員會에서도 軍人은 42 席을 차지했다. 金日成은 世襲體制的 安定化를 위해서는 軍部の 支持가 緊要하다는 點을 잘알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第 6 次 黨大會에 있어서 黨 指導體制的 改編은 다른 側面에서도 檢討되어야 한다. 첫째, 보다 낮은 年齡層의 進出이 현저해졌다. 34 名の 政治局員들 가운데 18 名이 50 代 以下이며, 10 名の 黨 秘書 가운데 金日成을 除外한 9 名이 50 代 以下이고, 2 百 48 名の 中央委員 가운데 1 百 39 名이 <新人>이라는 點이 이를 말해준다.

둘째, 經濟分野에서 經歷을 쌓아 올렸거나 또는 經濟問題에 從事한 經歷을 지닌 層이 크게 進出했다. 이들은 34 名の 政治局員 가

---

註 15)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pp. 435 ~ 436.

운데 12名, 2百48名の 中央委員會委員 가운데 65名(27%)에 이르고 있다.

이 두가지 點이 北韓의 <새로운 進路>를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될 수도 있다. 즉 교조주의적인 <老革命家>層으로부터 解放 이후에 成人이된 比較的 젊은 幹部들로의 일종의 점진적 世代交替, 그리고 一般的으로 이데올로기 보다는 合理性을 尊重하는 테크노크라트의 進出은 北韓이 차차 實用主義 노선으로 轉換할 可能性을 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는 根據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얼굴들>의 大部分이 <革命的 核心體>를 養成해 내는 만경대革命學院 出身들로서 金正日과 同窓關係에 있다는 點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34名の 政治局員 가운데 10名이, 19名の 軍事委員會 가운데 6名이, 그리고 2百48名の 中央委員 가운데 49名이 萬景臺革命學院 出身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또 對南 工作事業에 關聯된 人物들, 예컨대 김중린과 윤기복 및 정경희 등이 政治局에서 比較的 높은 序列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1960年代末 北韓이 對南 <軍事冒險主義>路線을 追求할 當時에 北韓 人民軍의 參謀總長이었던 崔光은 政治局의 第3位 候補委員으로 復權되었다.

이러한 黨 指導體제의 改編과 더불어 第6次 大會는 對美關係와 對南關係에 있어서 注目할 만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첫째, 對美關係에 있어서 金日成은 比較的 穩健한 內容으로 演說했다.

그는 自身の 그 이전의 演說들과는 달리 美國의 <危脅>을 거의 強調하지 않았다. 美國은 그 힘이 크게 弱化되어 資本主義 世界에서조차 그 指導力을 喪失했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美國의 <危脅>

을 言及하지 않으면서, 北韓은 美國이 <朝鮮의 統一을 放解하지 않는 條件 아래서> 美國과 <善隣關係>를 맺을 用意가 있다고 宣言했다. 金日成의 이러한 穩健路線은 外相 허담의 演說에서도 뒤따라지고 있다. 그는 1977年 12月 以後 強調해온 <美帝國主義에 대한 世界的 鬭爭>을 言及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北韓은 美國의 政治人들과 前職 官吏들의 平壤 訪問을 받아 들였다.

둘째 統一方案으로서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樹立을 提議하고, 이를 위한 10代 施政方針을 提示했다. 이 案은 1960年 8月에 提議했던 <平和統一案>인 聯邦制를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①現在의 南韓政府가 共產政權 또는 용공정권에 의해 代치되고 ②南韓에서 共產主義 活動을 規制하는 法律과 조처들을 廢止하며 ③駐韓 美軍을 撤收하지 않는 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協商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目標가 무엇인가를 감추지 않았다.

## V. 金正日體制的 國內政治的 向方

이제 이러한 基礎的 分析과 資料의 바탕 위에서 北韓의 세습체제가 國內的으로 어떠한 길을 걸게 될 것인가에 對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勿論 그 豫測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北韓執權層 內部の 파쟁이나 갈등에 對한 正確한 情報을 갖고 있지 못한 狀態에서, 그리고 北韓 社會 全般에 對해 制限된 資料 밖에는 確保하지 못한 狀態에서 미래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 이러한 制約性을 전제하면서 北韓 對內外政策의 向方을 생각하되 여기서는 먼저 對內政策과 對南政策의 向方에 力點을 두기로 한다.

우선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세습체제의 정착이 결코 容易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金正日이 金日成이 누리고 있는 絶對的·神話的 權力을 그대로 承繼하여 革命的 노선을 繼續 추구하기에는 많은 難點들이 놓여 있다는 點이다. 이 點을 두 側面에서 살펴 보되, 우선 金正日에 對한 忠誠과 奉仕가 繼續될 것인가의 側面에서 接近할 때, 그 해답은 否定的이 아닐 수 없다. 이 點에 對해 펜실바니아大學校의 李庭植 教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北에 있는 그의 政敵들이나 南韓의 非難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이 혁명투사로서 또한 폐허 위에서 北韓을 再建해야 했던 政權의 指導者로서 많은 것을 成就했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獨立的인 指導者로서 그의 아들의 能力은 아직 試驗된 바도 없다. 共產黨의 역사상,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正當性이 이전된 예는 없으며

최소한 아내에게 이전된 境遇에 다른 엘리트들에 의한 그들의 處理는 잔인한 것이었다. 例를 들어 레닌의 처인 나데스다 그롭스카야에 對한 스탈린의 처사나 江靑에 대한 鄧小平의 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北韓의 다음 세대의 엘리트들이 金日成의 死後 金正日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을까? 물론 金正日是 지금 부친의 비호 아래 자신의 勢力基盤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江靑도 毛澤東이 죽기 전 이와 유사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北韓人들은 中共人이나 蘇聯人들과 전혀 다른가?

北韓의 狀況은 이와 다를 것인가? 金正日이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時間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느 정도 時間이면 充分할 것인가? 勿論 이는 金正日이 장래에 直面하게 될 問題들의 性格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다.<sup>16)</sup>

어떻든 金正日是 黨의 政治局 常任委員會와 書記局 및 軍事委員會의 세 機關의 委員職을 兼하고 있는데, 이 세 機關의 委員職을 兼하고 있는 이는 金日成과 金正日 두 사람밖에 없다는 事實이 後繼者로서의 그의 地位를 말해 주고 있다.

여러가지 믿을 만한 증거는 金正日이 金日成과 〈共同 指導者〉로서 北韓을 支配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北韓의 理論家들은 세습체제의 妥當性を 理論적으로 合理化하는 一連의 論文들을 發表하고 있으며 〈代를 이어〉 革命의 目標을 추구해야 할 必要性을 強調하고

---

註 16) 이정식, “勞動黨의 發展過程과 金正日의 대두,” 『北韓의 오늘과 내일』, pp. 60 ~ 61.

있다.

金正日이 地方視察에 나서는 境遇, 政務院 總理 이종욱과 人民武力部長 오진우 등이 遂行한다. 그뿐 아니라, 金正日의 현장 교시는 <絶對的이며 무조건적으로> 복종되어야 한다고 北韓의 言論媒體들은 強調한다. 이와 더불어, 金正日에 對한 개인숭배가 시작되었다. 北韓의 言論媒體들은 金正日을 <탁월한 철학자이며 理論家이고, 黨의 현명한 指導者이며, 뛰어난 조직가>라는 찬사로써 부르기 시작했고, 金日成에 對해서만 使用하던 <경애하는 수령님>이라는 表現을 그에 對해서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金正日의 權力繼承에 對해서는, 비록 手動的인 次元의 것이라고 하여도, 여전히 手動的이면서 廣範圍한 저항감이 存在하는 것으로 評價됐다. 비록 金日成의 權位에 對해서는 복종한 北韓 住民들이라고 해도, 40代 初의 그 아들에까지 복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마지 못해 <代를 이어 가며> 충성하겠노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內心으로는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 것이 確實하다고 많은 學者들은 指摘한다.

北韓을 訪問하기도 했으며 北韓 問題에 정통한 徐大肅 教授는 金日成家族사이에서의 不滿과 不和도 金正日, 權力세습의 장래를 내다 봄에 있어서 반드시 考慮해야 할 要因이라고 強調했다.<sup>17)</sup> 그에 따르면, 金日成의 前妻이며 金正日의 생모인 金貞淑과 金日成 사이에도 몇 명의 子女들이 살아 남아 있으며 現在의 妻인 金聖愛와의 사이에도

---

註 17) 1983年 3月 25日 東京에서 열린 美國 조지워싱턴大·日本 慶應大 共同主催 「東北아시아와 韓國」 심포지움에서 徐大肅 教授의 討論 內容.



몇명의 子女들이 있다. 金日成이 죽거나 無能力해지는 境遇, 마치 朝鮮王朝의 王子들의 亂이나 골육간의 權力鬭爭처럼, 北韓의 金日成王朝도 예기하지 못한 後繼者 싸움이 형제들 사이에 벌어질 可能性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兄弟들 이외에도 金正日의 權力繼承에 不滿을 갖고 있는 勢力은 크게 보아 적어도 다음의 두 部類인 것으로 評價했다. 첫째가 黨의 理論家들로서, 세습체제가 마르크시스트政黨의 理論的 原理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點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의 不滿은 內心으로 작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둘째가 一種의 테크노크라트들로서, 合理性과 科學性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들이 세습에 對해 不滿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點이다.

權力的 세습에 對한 反撥은 中共과 蘇聯으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는 點이 아울러 指摘되고 있다. 勿論 中共과 蘇聯은 外交修辭的인 次元에서 金正日에 對해서도 〈敬愛하는 指導者〉라는 表現을 써 주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公式刊行物을 면밀히 分析해 보면 世襲體制는 고사하고 主體理論 自體도 거부하고 있음이 明白해진다. 特別히 안드로포프 (Iuri Andropor)가 蘇聯共產黨 서기장에 就任한 以後 브레즈네프 (Leonid Brezhnev)前 서기장이 그 말기에 나타냈던 個人崇拜와 族벌체제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事實은 金日成 - 金正日 世襲體制로서는 負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世襲體制를 反對하는 立場은 中共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中共 政治指導層은 毛澤東의 個人崇拜와 權力集中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北韓의 世襲體制는 明白하게 反마르크시스트적인 것이다. 그러

므로 北韓에서 金正日의 位置가 確定된 뒤 불과 수주일만에 發刊된 中國共產黨의 公式理論誌인 『홍기』(1980年 第17號)는 「權力이 소수자의 수중에 集中되어서는 안된다」는 論說을 通해, 北韓의 個人崇拜體制와 世襲體制를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金正日의 權力繼承은 國內외의 抵抗에 직면해 있다. 最近의 北韓 관영매체들이 金正日에 對한 충성과 黨의 團結을 빈번하게 強調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저항의 存在를 反證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狀況이기 때문에 北韓은 오늘날 南北對話에 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면 金日成·金正日 世襲體制의 장래는 어떠한 것인가? 이 물음에 對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시 金日成의 죽음이 언제 있을 것이냐가 世襲體制의 장래에 重要하게 影響을 끼칠 것이다. 勿論 金日成은 高齡이기는 하되(만 71歲로서 美國의 레이건(Ronald Reagan) 大統領보다 나이가 적고 李承晚이 第1共和國 初代 大統領으로 당선됐을 때보다 나이가 적다는 指摘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그의 生存期間의 장단 여부가 金正日의 權力安定化에 直接的 影響을 줄 것이라는 主張이 우세하다. 즉, 金日成이 앞으로도 10年以上 살아서 唯一支配體制를 이끌어 나가는 境遇 金正日도 50代의 장년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統治技術을 向上시킬 것이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黨과 軍部 및 行政府에 고루 配置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金日成이 5年 以內에 죽거나 無能力狀態에 빠지는 境遇 金正日의 權力繼承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쳐 종국적으로는 소수의 과두지배자들에 依한 集團指

導體制가 나타나거나 民衆騷擾가 發生할 수 있을 것이라는 豫測도 나오고 있다.

金日成 - 金正日 世襲體制와 關聯하여 살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要因은 이른바 北韓版 紅專의 對立이다. 오늘날까지 金日成은 紅 공 혁명노선을 強調해 왔다. 앞으로도 상당한 期間 동안 北韓은 紅에 의해, 다른 表現으로는 〈政治의 優越性〉에 의해 指導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産業化하는 現代社會로서 그 內部에는 이미 專의 그룹 즉 테크노크라트 勢力이 成長해 오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해야 한다. 勿論 스칼라피노 (Robert A. Scalapino) 教授가 指摘했듯이, 金日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紅이 결코 專에게 그 優位の 자리를 물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李庭植 教授가 強調하고 있듯이, 權力的 世襲은 고사하고 個人崇拜 그 自體가 時代의 조류에 逆行하는 것이다.

모든 共產國家에 있어서 그리고 北韓에 있어서도 時代的 조류는 確實히 多元主義와 合理的, 政策決定을 指向하고 있다. 그들 社會는 너무 複雜해져서 어느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革命的 指導者가 - 그의 繼承者는 고사하고 - 革命的 프로그램을 繼續해 나가기란 대단히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金正日이 權力을 繼承한다고 하여도 그는 長期的으로는 革命家의 길보다는, 行政家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勿論 그가 北韓社會 內의 緊張을 維持하기 위해, 統一問題에 關해 때로는 모험주의적인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러

나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南朝鮮 解放>은 하나의 修飾語로 바뀌게 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 點은 特히 金正日이 革命 또는 게릴라戰을 經驗하지 않은 世代에 屬하며, 物質的 安락 속에서 成長한 一種의 <귀족>이라는 側面을 考慮할 때 수증이 가계 된다.

## VI. 金日成 - 金正日體制的 國際環境

金日成 唯一獨裁體制的 本質的 變化가 源泉的으로 그 內部로 부터 發生할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 적어도 1980年代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見解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北韓社會의 本質的 變化的 但書를 結局 外部의 衝激으로부터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國際潮流의 變化 또는 強大國의 韓半島 政策의 變化가 北韓政治體制에 強力한 影響을 주고 그것이 北韓의 內的 變化를 誘導할 可能性에 대해 눈을 돌리기로 한다.

### (1) 國際政治의 全般的인 狀況

여기서 우리는 먼저 現在 일어나고 있는 國際政治上的 變化, 그 自體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

첫째, 美國 國力の 심각한 下降이다. 대부분의 專門家들은 美國의 經濟力 및 軍事力이 全般的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특히 蘇聯에 比較해 볼 때 그러한 下降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본다. 둘째, 인도차이나에서 美國의 敗北가 造成한 美國의 政治的인 判斷力과 指導力에 對한 友邦의 不信 霧圍氣이다. 그들은 인도차이나에서 美國의 敗北는 美國의 아시아戰略이 바탕을 두었던 前提條件들에 대한 懷疑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評價한다. 셋째, 美國과 日本關係의 變化이다. 그들은 近來 日本의 獨自性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主張하고 그것은 國際政治에 커다란 影響을 줄 것으로 展望한다. 防衛問題와 貿易問題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葛藤

이 깊어가고 있는 現象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네째, 大西洋同盟 內部에서 점차로 擴大되는 不協和音이다. 유럽에서 <中立主義>가 成長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는 <孤立主義的>傾向이 成長하고 있는데, 이 두 要因이 겹쳐서 결국 西歐同盟의 균열을 造成하고 있다.

다섯째, 中東과 페르시아灣 地域國家에서의 不安定の 增大이다. 特別히 戰略的 要衝에서의 不安定 增大은 이 地域의 防衛에 대한 戰略的 負擔을 美國에게 追加시키고 있다. 여섯째, 美國과 中共의 葛藤 反目 및 蘇聯과 中共의 關係改善 可能性이다. 그는 台灣問題를 둘러싼 美國과 中共간의 葛藤은 두 나라 사이에 展開되어 온 和解構造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비록 1950年代의 水準은 아니라고 해도 蘇聯과 中共의 接近을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고 展望했다.

이러한 狀況 아래서 美國은 점차 不確實한 戰略的 課題들에 直面하게 되는데 이 課題들을 다룰 수 있는 政治的 意志는 不安定해지고 財源은 크게 줄어드는 反面에 心理的·物質的 負擔은 높아질 것이다.

具體적으로 말해 美國은 다음 세 側面에서 戰略的 課題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sup>18)</sup> 첫째,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會員國들이 美國의 政策과 힘에 對한 커다란 憂慮를 품고 있으며 蘇聯의 軍事力이 前例없는 能力을 誇示하고 있는 時點에서 美國은 유럽에서 蘇聯의 軍事的·政治的 威脅에

---

註 18) T. C. Lee,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World Politics in the 1980s", 國際政治學會 第23次 年例總會(Mexico City)에서 發表한 論文, p. 18.

直面하게 되었다. 둘째, 日本이 美國으로부터의 自主性에 대한 強力한 熱望을 나타내고 있는 時點에서 美國은 비록 그 이전의 同盟關係보다는 弱화된 水準이겠으나 中蘇同盟을 回復시킬 수 있는 中共의 蘇聯接近이 提起할 複雜한 問題들에 直面하게 되었다. 셋째, 美國은 西南아시아에서 훨씬 潛在的으로 심각한 挑戰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러한 分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가지 結論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變化들은 美國에게 여러 可能한 方案들 가운데 보다 慎重한 選擇을 要求하고 있으며, 同時에 美國으로 하여금 세계의 地域에서 同時에 軍事介入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도록 要求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던 상황들 - 유럽에 있어서의 西歐同盟體制의 弱화와 中共의 對美反撥 및 日本의 獨自性 追求 - 은 美國의 3面 同時軍事介入 能力을 極도로 制約할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 그러한 變化들은 美國의 政治·經濟構造에도 影響을 주어 美國의 經濟力을 저하시키고 政治·社會的 問題들을 惹起시켜 마침내 國內的 合意構造를 더욱 弱化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넷째, 이러한 여러가지 狀況들은 美國 國民들로 하여금 美國 政府의 새로운 對外介入을 크게 制約시키도록 作用할 것이다.

이러한 觀察은 결국 世界問題 또는 國際政治에 대한 美國 影響力의 減少라는 말로 要約될 수 있다. 그러면 美國의 影響力만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蘇聯의 影響力 역시 줄어들고 있다.

蘇聯의 國內經濟는 오랫동안 상당한 困境에 처해 왔으며, 同盟國家들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은 무척 減少됐다. 그러나 이 點만으로 美國의 立場이 위안되는 것은 아니다. 美國이 2次大戰 以後의 現

狀을 維持하고자 努力함에 비해 蘇聯은 現狀을 變更하고자 努力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美國의 國際的 地位의 〈基本的 危機〉가 있다.

國際政治에 있어서 美國의 影響力 減少와 더불어 1980年代 後盤以後 戰後의 盟約體制는 終止되고 多極體制에 바탕을 둔 새로운 世界秩序가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世界秩序 아래서 美國이 取할 對韓政策의 方向은 다음과 같이 진단된다.

基本的으로 韓半島가 美國의 世界政策에서 차지하는 地位는 낮아지며, 다른 東아시아國家들에 비교해 볼 때 美國의 對韓政策은 美國의 對日政策 또는 美國의 對中共政策에 종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戰略的 能力에 있어서 深刻的 政治的·軍事的 制約에 直面한 美國으로서는 韓國과 같은 地域에서 결정적 役割을 遂行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韓國問題에 있어서 중대한 變化를 불러 일으킬 만한 能力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美國의 國際的 與件이라는 틀속에서 美國의 韓半島政策을 把握할 때, 우리는 美國이 취할 네 개의 世界政策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시나리오는 美國이 1950年代처럼 〈유럽우선 戰略〉으로 復歸한다는 內容이다. 유럽防衛의 重大性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美國은 아시아를 희생시키는 狀態에서 西歐의 防衛를 強調하게 된다.

美國이 이러한 길을 걸을 때, 美國의 對韓政策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韓國에서의 美軍의 一方的인 撤收로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美國은 駐韓美軍의 一方的인 撤收 대신에 美·



蘇·中·日의 保障 아래 韓半島 전체를 中立化 시키는 길을 걸을 것이며, 이 案의 現實化와 더불어 撤軍을 斷行할 可能性이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美國이 日本의 軍事力을 增強시키고 韓國을 包  
습한 아시아의 安保責任을 日本에 맡긴다는 內容이다. 앞으로 美國  
의 軍事力이 縮小되는 反面에 世界 여러 곳에서 美軍配置에 대한 要  
求가 커지는 境遇, 美國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日本  
에게 軍事力 增強을 強力히 要求할 것인데, 日本은 자신의 經濟的  
生存을 위해 1次的으로 緊要한 對美 貿易關係를 円滑히 維持시키려  
는 意圖에서 美國의 要求에 順應할 것이다. 그런데 日本이 이러한  
길을 걷는 境遇, 그것은 美國의 對外政策에 여러가지 深刻한 부작용  
을 낳을 可能性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이 극도로 절망적인 狀況에 處해 있지 않는 限, 결  
코 이러한 시나리오를 採擇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美  
國이 이러한 길을 걷는 境遇, 그것은 韓半島問題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가? 이러한 狀況 아래서 韓國의 統一은 생각조차 될 수 없  
다. 日本의 地域的 役割擔當은 北韓과 中共 및 蘇聯의 날카로운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韓半島를 分割하여 統治하려는 日本의 야  
심을 꺾어줄 것이므로 韓國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위한 機會는 사실  
상 完全히 봉쇄된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유럽과 아시아 兩者를 拋棄하고 <海上戰略>으  
로 後退한다는 內容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最近 美國의 戰略家  
들 사이에서 깊이 論議됐던 海上戰略論을 살펴 보아야 하겠다. 존슨  
行政府와 닉슨 行政府 및 카터 行政府 아래서 防衛·外交·政策 專

門家로 봉직했으며 海上戰略論의 代表者인 R.W. 코머에 의하면 美國은 두 가지 方向을 取할 수 있다. 하나는 海軍力을 增強하여 바다를 支配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同盟國家들과의 聯合을 強化하여 이를 바탕으로 傳統的 防衛를 維持해 나가는 길이다. 그는 이 가운데 美國이 取할 수 있는 現實的인 方案은 첫번째 것이라고 結論지었다.

그러나 코머의 海上戰略論은 유럽大陸과 아시아大陸 兩者의 事實上의 拋棄를 前提하고 있으며 따라서 美國 國家利益의 全面的 拋棄를 意味한다는 뜻에서 많은 戰略家들에 의해 拒否되었다. 그러나 美國이 이러한 路線을 取하는 境遇 그것은 韓半島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가?

大陸勢力인 中共 및 蘇聯 그리고 軍事強大國化한 日本 사이에 重要한 地域戰爭이 發生하거나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가 나타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美國의 對中共·日本關係가 惡化되는 狀況에서 유럽에서도 美國의 地位가 붕괴되는 境遇에는 韓國과 台灣이 西太平洋과 東아시아에서 美國의 마지막이면서 고독한 정박지로 부상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北韓과의 政治的 調整을 위한 前提로서의 駐韓美軍 撤收는 전혀 考慮되지 않을 것이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특히 韓國만을 念頭に 둔 것으로서, 韓半島問題의 最終的 解決을 위해 美國이 北韓 및 中共과 直接的인 政治協商을 벌인다는 內容이다.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協商을 위해 무척 有利한 時期는 이미 카터 行政府의 退進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보는 筆者로서는 따라서 네번째 시나리오가 美國과 韓國 모두에게 不利한 狀況에서 展開될 것이라고 豫測한다. 北韓이 駐韓美軍의 存在와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存在를 認定하는 代價로 美國이 蘇聯과 中共의 韓國承認이 없는 狀況에서도 北韓을 承認할 可能性도 이 시나리오는 包含될 수 있다.

## (2) 中·蘇對決과 北韓

여기서 中蘇對決 속의 北韓의 지위를 생각하기로 한다. 자고리아 (Donald S. Zagoria) 교수의 表現을 사용한다면, “1978年末 以來 特히 中共이 日本 및 美國과 화해를 시도한 이후 中共·蘇聯·北韓이 3각관계에는 새로운 周期가 시작되었다.<sup>19)</sup> 우선 北韓은 中共에 대한 불만을 表示하게 되었다. 美國 및 日本과 일종의 연합 전선을 構築하여 蘇聯에 대항하기로 결심한 中共의 새 指導層은 北韓에게 자신의 態度 變化를 납득시키고자 했으나, 北韓은 의혹을 품게 된 것이다. 北韓과 中共의 關係를 긴장시킨 要因들이 繼續 나타났다. 예컨대 1979年 2월에 發生한 中共의 베트남 침공도 中共에 대한 北韓의 不信을 增大시켰다. 周邊國家에 대한 中共의 支配慾이 상황에 따라서는 北韓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그 사건은 새롭게 일깨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北韓은 中共의 비위에 맞지 않는 發言도 서슴치 않았다. 中共 지도층과 異見을 드러낸 캄푸치아의 시아누크(Nordom Sihanouk)에 對한 공개적인 환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中共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예컨대 中共의 官當言論은 駐韓美軍의 撤收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sup>20)</sup>

註 19) 도널드 자고리아, “北韓의 對蘇·中共關係,”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편),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2), p.359.

註 20) Helen-Louise Hunter, “North Korea and the Myth of Egidistance,” Korea & World Affairs, Vol. IV, No. 2 (Summer, 1980), pp. 273 ~ 278.

蘇聯은 이러한 變化를 쉽게 감지했다. 中共의 베트남 침공 수 개월 뒤인 1979年 6月 以後, 蘇聯은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爲한 일련의 제스처를 나타냈다. 이를 前後한 時期에 있어서 北韓과 蘇聯의 關係改善을 보여 주는 징후들이 여러 方面에서 나타났다. 北韓의 이러한 對中·蘇關係는 1980年에도 뚜렷했다. 1980年의 韓國 國內 事態에 대해, 그리고 駐韓 美軍의 役割에 대해, 中共의 관영 言論은 蘇聯의 관영언론과는 대조적으로 비난의 어조가 약했다. 한편 1980年 10月 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의 金日成의 演說도 은유적 方法으로 中共의 對美 接近에 不滿을 表示했다. 그는 中共이 革命의 原則을 배반하고 帝國主義와의 야합을 追求하고 있다는 뜻을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勿論 전반적으로는 北韓과 中共의 關係에 本質的인 變化가 일어나지는 않았다.<sup>21)</sup>

蘇聯에 對해 보다 接近的이고 中共에 대해서는 中立的인 北韓의 자세는 1981年 한 해에도 繼續되었다. 北韓은 蘇聯의 對外政策에 對한 支持를 일반적으로 表示했으며, 蘇聯도 北韓에게 多樣한 工業 프로젝트를 提供했다. 蘇聯의 한 대변인이 北韓과 蘇聯 關係를 “뜨겁지도 않으며 차갑지도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表現한 것은 양국관계가 만족스러운 狀況에 있음을 말해 준다. 이에 비해 中共의 對內外政策에 對한 北韓의 대단히 조심스런 불만의 表示가 명백히 나타났다. 예컨대, 美國과 中共의 和解가 결국 北韓의 革命路線에 對한 中共의 支持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北韓은 나

註 21) Young C. Kim, "North Korea in 1980," pp. 122~124.

타낸 것이다. 22)

北韓의 中共 및 蘇聯과의 關係는 1982년에 상당한 變化를 나타냈다. 北韓과 中共의 關係는 最近 몇 年 사이의 그것에 비해 훨씬 改善되고 반면에 北韓과 蘇聯의 關係는 어느 정도 서먹해졌다. 1982年 4月 鄧小平과 黨 總書記 胡耀邦이 平壤을 비밀리에 訪問한 데 이어 이 해 9月 金日成이 1976年 毛澤東 死後 처음으로 中共을 訪問한 것이다. 이 일련의 交換訪問은 北韓과 中共의 關係를 크게 호전시켰다. 예컨대, 1982年 9월에 열린 “中共黨 12次 大會”(12全大會)에서 胡耀邦은 北韓을 中共의 가까운 友邦인 루마니아나 유고슬라비아 보다 먼저 호칭하였다. 또한 金日成의 訪問 뒤 中共은 北韓으로부터의 美軍의 즉각 撤收를 주장하는 平壤의 입장을 強力히 支持했다. 이에 반해, 北韓은 蘇聯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1982年 8月 15日 蘇聯이 北韓에 보낸 해방 37周年 記念 祝賀 電文에서 “1945年 8月 蘇聯軍은 日本 軍國주의 軍隊 가운데 가장 강한 關東軍을 참패시켜, 韓民族을 日帝 식민주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명시한 데 대해, 金日成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金日成은 또한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에 대해서도 종전과는 달리 不滿을 表示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고리아 教授는 北韓의 이

---

註 22) Robert A. Scalapino, "Current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 No. 6 (November-December, 1981), pp. 28~29.

러한 〈均衡摸索作業〉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根據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優先 蘇聯과 中共 양국은 모두 北韓이 中蘇分爭을 利用하였다는 事實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北韓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않고 양국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출해 내기가 漸次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北韓은 아직도 貿易, 에너지 및 軍事援助 부문에 있어서 蘇聯에 對한 依存度가 매우 높은 狀態이다. 이는 蘇聯에게 北韓을 움직일 經濟라는 조종간을 쥐어 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

더구나 北韓의 蘇聯에 대한 依存度는 해마다 높아질 것이다. 한 예리한 觀察者가指摘하였듯이, 北韓은 군비를 維持하며, 한편 民間經濟를 作動시키는 동안 資源을 고갈시켰다. 北韓은 또한 막대한 外債를 안고 있으며 總濟發展을 위하여 投入할 資源이란 實質적으로 없는 狀態이다. 國內적으로는 에너지, 교통 및 人力의 결핍으로 심각한 問題들에 直面하고 있으며 軍事裝備의 國內生産 能力은 선진기술 導入不足으로 漸次 제한될 것이다.

結局 北韓은 그들이 외치는 獨立이라는 말과는 달리 事實上 經濟援助 및 先進의 軍事·産業 技術에 대한 必要性 때문에 外部의 援助者에게 더욱 더 종속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딜레마는 北韓의 經濟 및 軍事力의 伸張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sup>23)</sup>

---

註 23) 차고리아, “北韓의 對蘇·中共關係,” pp. 369 ~ 371.

### (3) 南北韓關係에 對한 展望

그러면 金正日體制가 登場할 時期에 있어서 南北韓關係는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① 무엇보다 '韓半島問題의 韓國化'의 추세가 1970年代와 마찬가지로 持續될 것이다. 즉 國際政治의 큰 흐름은 韓半島問題가 한 민족 스스로의 力量에 依해 解決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國際體制가 1950年代의 兩極的 冷戰體制와 같은 美國과 蘇聯의 敵對的 冷戰體制로 完全히 復歸한다면, 그 때는 南北韓 모두가 自主的 行動의 領域을 거의 喪失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統一問題에 對한 韓民族의 이니셔티브는 상당한 限界에 直面할 것임을 銘心해야 한다.

② 國際政治의 潮流가 韓民族의 自決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여 周邊 強大國等이 韓半島의 早速한 統一을 支援한다거나 또는 樂觀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強大國들은 韓半島의 統一이 대단히 어려운 課題라는 點을 잊지 않고 있다. 理念과 體制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軍事對決의 狀況속에 對해 있는 南北韓이 과연 相互 敵對意識에서 벗어나 平和的인 統一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회의를 갖고 있다.

強大國들이 韓半島問題에 關해 一次的으로 關心을 두고 있는 것은 統一이 아니라 現狀維持이다. 韓半島의 現狀이 變更되는 경우 그것은 東北亞의 國際體制에 동요를 일으킬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強大國의 介入을 결과시킬 것이라는 判斷은 그들로 하여금 南北韓關係의 現狀維持를 支持하게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그들은

南北韓이 優先的으로 追求해야 할 課題는 緊張緩和를 거쳐 〈制度化된 平和〉를 樹立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으며, 〈制度化된 平和〉를 이룩하기 爲해서는 南北韓間의 直接的이며 建設的인 協商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民族自決의 原則을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強大國이 支持하는 民族自決의 原則에는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

되풀이해 말하거니와, 強大國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支持하고 있다. 南北韓 사이에 軍事的 衝突이 發生하는 경우 그것은 強大國 사이의 國際關係에 대단히 심각한 波及效果를 미칠 것이다.

그러면 蘇聯의 立場은 어떠한 것인가? 이 問題와 關聯하여 最近 學界 一角의 關心은 蘇聯이 美·日·中共의 3角協調體制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北韓을 使喚하여 〈第2의 韓國戰爭〉을 挑發할 可能性 與否에 集中되어 있다.

蘇聯이 3角協調體制 또는 美·中共間의 軍事同盟化를 견제하기 위해 北韓을 使喚하여 〈第2의 韓國戰爭〉을 挑發할 可能性이 있다는 推論도 妥當性을 지니고 있다. 蘇聯의 立場에서 볼 때, 오늘날의 東北아시아의 狀況을 1970年代의 그것에 비해 보다 더 危脅的이다. 1970年代 初에 있어서는 美·中共間의 關係改善은 美·蘇, 關係의 改善과 同時에 이루어졌으나, 1970年代 末에 있어서는 美·蘇關係가 惡化되고 있는 가운데 美·中共關係는 急速히 改善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美·中共·日本의 3角體制가 反蘇的인 性格을 分明히 드러내면서 또 軍事協力の 可能性을 內包한 채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蘇聯이 北韓과의 紐帶를



緊密히 하면서, 金日成으로 하여금 韓半島에서의 緊張의 水準을 높여서 그 安定性을 동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美·中共 關係를 동요시키는 길을 絶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자고리아 教授는, 特히 中·蘇戰爭의 경우나 北韓에서의 承繼 危機가 發生하는 경우에 蘇聯은 北韓을 武力占領하여 <第2의 아프가니스탄> 化할 可能性이 있고, 이와 同時에 兩者의 軍事的 提携로써 <第2의 韓國戰>을 挑發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24)</sup>

이러한 可能性에 對해 우리는 충분히 對備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可能性이 다음과 같은 理由들로 미루어 적다고 생각된다.

첫째, 蘇聯은 金日成의 北韓을 자신이 다루기 어려운 <別種>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蘇聯은 金日成의 <主體>理論을 公式的으로 批判하지는 않았으나 전혀 言及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不贊成을 表示해 왔다. 蘇聯이 <社會主義로 가는 多樣한 路>을 認定하고 <民族的 偏向>에 대해 상당한 寬容을 보여, 온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極斷的인 個人崇拜를 擁護하는 <主體>理論에 對해서는 대단히 冷淡한 反應을 보여 온 것이다. 브레즈네프가 1981年 2월에 열린 第26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北韓이 <우리>와 같은 立場에 서 있지 않은 <편향주의> 그룹에 속해 있음을

---

註 24) Donald Zagoria, "North Korea : Another Afghanistan ?"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ebruary 23 ~ 28, 1981.

暗示한 것도 部分的으로는 여기에 기인한다.<sup>25)</sup>

蘇聯이 만일 韓半島에서 〈第2의 韓國戰爭〉을 挑發하는 경우 그것은 韓國에 軍隊를 駐屯시키고 있는 美國과의 直接的 對決로 이끌어질 可能性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모험적인 作業이 效率的으로 遂行되기 위해서는 蘇聯은 北韓政權에 對해 거의 完全的 統制力을 確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蘇聯은 그것을 걸어하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비모험적인 길을 걷고자 하는것 같다. 實際로 北韓과 蘇聯과의 關係는 1979年 이후 어느 정도 改善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蘇聯과 越盟 間에 1978年에 일어났던 것에 相應할 만한 〈돌파〉는 없다. 蘇聯은 여전히 北韓이 對南挑發에 使用할 만한 攻擊用 重武器의 供給을 拒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第2의 韓國戰爭〉은 美軍의 韓國駐屯과 美國의 對韓公約에 미루어 蘇聯 間의 間接的 對決을 誘導할 것이며 蘇聯의 태탕트는 完全的 終末을 告할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이 길을 擇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第2의 韓國戰爭〉은 日本의 核武裝化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蘇聯으로서도 결코 願하지 않는 事態의 展開이다. 日本이 核武裝化하여 美國과의 既存 同盟體制를 強化해 나간다는 시나리오는 蘇聯에게는 커다란 惡夢이 아닐 수 없다.

---

註 25) Thomas P. Bernstein and Andrew Nathan, "The Soviet Union, China, and Korea," a paper read at a symposium held by Korea University and Columbia University, 1981, pp. 32 ~ 36.

네째, <第2의 韓國戰爭>은 1950年과 마찬가지로 中共의 軍事 介入을 가져옴으로써 北韓이 中共의 影響圈 아래 들어갈 危險性이 높아질 것이다. 蘇聯에게 戰略적으로 緊要한 東北아시아에서 中共과 北韓의 密着이 이루어지는 것을 蘇聯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③ 이와 더불어 우리가 考慮해야 할 事項은 美國에서 발생할 北韓問題에 對한 態度變化이다.

첫째가 先制的 讓步論이다. 키신저(Henry Kissinger)는 共產國家와의 協商方式으로서 살라미方法(the salami method)과 선제적 讓步(the preemptive concession)를 提示했다. 前者는 協商의 對象 가운데 要點에 對해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서 적은 合意를 쌓아 所期의 效果를 거두는 方法이다. 이 경우에는 不必要한 讓步를 할 수 있고, 따라서 相對方의 策略에 말려들 수 있는 危險이 있다. 後者는 한쪽이 讓步할 수 있는 最大의 것을 먼저 내놓고 其他 讓步할 수 없는 것에 對해서만 集約的인 協商을 하는 것이다. 키신저는 베트남協商에서 後者를 使用했다.<sup>26)</sup>

이러한 先制讓步論에 立脚하여 韓半島 問題의 解決方案을 提示한 이는 저널리스트 出身으로서 카네기國際平和財團의 先任研究員으로 있는 해리슨(Selig S. Harrison)이다. 그는 現在의 韓半島 狀況으로서 中·蘇의 南韓 承認과 美·日의 北韓承認을 同時에 이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러므로 美國이 駐韓美軍을 撤收하고 美·日

---

註 26) 安秉俊, “4強關係의 新 趨勢와 美·日의 對 北韓接近,” 『統一政策』, 第6卷 第3·4號(1980), pp. 62~63.

이 南北韓에 對해 同等한 政策을 追求하면서 中·蘇의 南韓承認을 促求하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그는 美國이 南北韓間의 相互軍縮과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追求할 것을 提議했다.<sup>27)</sup>

해리슨의 提議가 美國의 政府政策 樹立過程에서 차지하는 位置는 작다고 본다. 一般的으로 保守的인 立場의 官吏들에 依해서는 勿論이거니와 學者들에 依해서도 批判되고 있다. 예컨데 브루킹즈 研究所의 先任研究員인 클러프(Ralph N. Clough)는 美國이 그러한 길을 걷는 경우, 南韓에는 두려움이 增大되고 北韓에는 好戰性이 增大되어 協商可能性은 줄어들고 軍事衝突의 可能性은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해리슨式의 發想—여기에는 물론 그 變型도 包含된다—이 1980年代 中盤부터 學界나 言論界 및 進歩主義的 政治人과 政策 官僚들 사이에 擴散될 可能性이 없지는 않다. 예컨데 해리슨 方式에 對해 批判的인 클러프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前提를 덧붙이면 서 美國의 對韓政策의 變更을 支持하는 立場을 나타냈다. 또 역시 해리슨 方式에 對해 批判的인 와인스타인도 일종의 先制讓步論을 提示하고 있다. 그는 美國과 日本이 優先 平壤과 外交關係를

---

註 27) Selig S. Harris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Future of Korea," in Franklin B. Weinstein (ed.), *US-Japan Relations and the Security of East Asia: The Next Decade*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 222 ~ 223. 그의 이 論文은 그의 다음 論文과 本質的으로 脈을 같이 하고 있다. Selig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No. 17 (Winter, 1974 ~ 1975), pp. 60 ~ 62.

樹立하면 中共과 蘇聯의 서울 接近을 재촉시킬 수 있다고 본다.<sup>28)</sup>

이와 同時에, 北韓에게 〈西歐選擇〉을 주자는 주장도 있다. 北韓에게 中共이나 蘇聯이나 의 두 가지 選擇 以外에 유럽이라는 새로운 選擇(western option)을 주어 北韓을 西歐와의 活潑한 接觸속으로 誘導해 내자는 것이다. 優先 美國은 北韓에게 自身이 北韓과의 對話에 關心이 있음을 보여 주기 爲해 國會議員의 〈非公式的〉 北韓訪問을 繼續 許容하면서, 차차는 日本과 西獨 및 餘他の 工業國家들에게 北韓과의 貿易을 勸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을 展開하는 學者들은 北韓이 結局 〈西歐 選擇〉을 받아들이는 경우, 南北韓의 交叉承認이 뒤따를 것이고 南北對話가 成立되어 相當한 水準의 結實을 낳을 것이라고 期待한다.<sup>29)</sup>

이 〈西歐 選擇〉 賦與論도 1981年 2月の 韓·美 共同聲明에 依해 일단 제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發想은 앞서 指摘한 先制讓步論과 關聯하여 꾸준히 提起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特히 北韓의 脫蘇化 誘導를 意味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따라서 美國의 對蘇 強硬政策에도 符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發想은 경우에 따라 相當한 說得力을 지닌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다.

---

註 28) Franklin B. Weinstein and Fuji Kamiya (eds.), *The Security of Korea : U. S.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the 1980's* (Boulder : Westview Press, 1980), p. 231.

註 29) 代表的인 例로 Zagoria, "North Korea," pp. 35 ~ 37을 指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美國이 보다 積極的인 打開策을 講究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韓半島問題가 1980年代 末까지도 어떤 形態로든 解決點에 도달 또는 接近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東北아시아의 不安定의 主要한 源泉이 될 것이므로 美國이 南北對話의 打開策을 積極的으로 講究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이미 1970年代부터 提起되었던 것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主張을 提示하고 있는 이들의 韓半島 構想은 어떠한 것인가?

結論부터 말해 뚜렷하게 새로운 構想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70年代에 갖가지 可能한 案들에 對한 論議가 事實上 끝나 버렸기 때문에, 80年代에 들어 왔다고 해서 새로운 構想이 創出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고리아 教授는 美國이 3段階 接近 方式을 取해야 한다고 말한다. 美·北韓의 非公式 對話와 西歐의 立場을 調整하기 위한 美·日·韓國의 共同探索 → 카터行政府가 내놓았던 美·南韓·北韓의 3當局會談 → 키신저가 提案했던 6者(美·日·中·蘇·南韓·北韓)會談이 그것이다. 이 案 역시 1970年代 案의 變型인 것이다.

## Ⅵ. 結 論

이처럼 金正日 體制 登揚時期의 國際環境은 < 2個의 韓國 >을 承認하는 方向으로 展開될 것이다. 즉 南北韓交叉承認의 條件이 成熟해질 것이다.

問題는 北韓이 이에 對해 어떻게 反應하는가이다. 만일 北韓이 이데올로기적인 硬直性에서 벗어나서 內部의 經濟發展을 實用主義的인 次元에서 追求해 나가고 이를 爲해 西方과의 接觸을 選擇하는 경우, 北韓은 韓半島의 < 두 개의 韓國 >이 있다는 現狀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나갈 可能性이 크다. 이렇게 되면, 強大國의 南北韓 交叉承認은 보다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 2個의 韓國 >을 끝까지 拒否하는 한, 強大國은 交叉承認의 건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結局 1980年代 後半 1990年代 初盤에는 北韓의 金正日體制도 穩健한 實用主義的 路線으로 기울어질 可能性이 크다. 이에 따라 北韓은 南北對話에 對해 好意的으로 나올 것으로 期待된다.

